

KTX타고 디자인비엔날레·숙박까지 한번에 광주시, 디자인비엔날레 결합상품 2종 출시

수도권 포함 전국 대상... 입장권·KTX·숙박 할인 결합

오는 30일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지역 숙박업계가 손을 잡고 교통·문화·숙박을 아우르는 결합상품 2종을 출시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결합상품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광주를 찾는 관람객들이 KTX 왕복승차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입장권, 광주지역 숙박 할인 혜택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도록 구성돼 문화예술 향유와 여행 편의를 동시에 제공한다.

상품은 ▲KTX+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 ▲KTX+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숙박 할인 혜택 등 2종이다. 관람객은 여행 스타일과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결합상품은 국내외 관람객뿐 아니라 디자인 전공자, 예술 애호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실용적인 여행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8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열린다. 이 행사는 세계 19개국 429명의 작가와 8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포용'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단순 관람을 넘어 관람객과의 교감과 일상 속 변화를 이끄는 전시로 기획됐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KTX와 지역 숙박업체를 연계한 이번 결합상품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서 지역 관광과 문화 향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결합상품은 10월 31일까지 운영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HD현대삼호, 변전소 응급 복구 완료로 전력 공급 '정상화'

화재 직후 전사적 협업과 신속 대응으로 복구 조기 완료... 7일부터 야드 전체 전원 공급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가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변전소를 조기에 복구해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다. HD현대삼호는 7일 변전소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회사 야드 전체에 전원 공급을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28일 변전소 화재 직후 지자체와 관공서 및 관계 기관과 신속히 협력해 전력 설비를 조기에 설치했으며, 이날 전력망 복구가 이뤄지면서 전체 전원의 상시 공급이 가능해졌다.

특히, 여름휴가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협력사 관계자들까지 피해 현장 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건을 앞당기는 등 크게 기여했다.

김재을 사장은 "휴가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앞장서준 임



HD현대삼호 회사야드내사고복구현장사진.

직 및 협력사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지자체, 관계기관의 긴밀한 지원으로 복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다

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및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전남도, 서울푸드 인 방콕 참가 기업 모집

전남 농수산물 홍보관 운영... 20일까지 11개사 모집

전라남도가 오는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서울푸드 인 방콕 2025(SEOUL FOOD in Bangkok 2025)'에 참가할 지역 식품 수출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박람회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방콕 퀸 시리크 내셔널(Queen Sirikit National)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전남도는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전남 농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전남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된 농수산물 가공식품 생산·유통기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업체다.

시장성 평가(현지 무역관)와 정성평가(위원회)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총 11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여성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사회적기업, 무역아카데미 참여기업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 기업엔 ▲기업별 조립부스 제공 ▲바이어 유치 및 상담 주선 ▲통역 지원(3일간) ▲1사 1인 항공료 50%(최대 40

만 원) 등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일까지이며,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현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최근 한미 간 통상 환경 변화와 관세 리스크를 고려할 때 동남아 시장은 전남 농수산물 수출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방콕 박람회를 계기로 미국 등 일부 시장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수출 협력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운영된 '서울푸드 인 방콕' 전남 농수산물 홍보관에는 지역 농수산물 수출기업 11개사가 참가해 325건의 수출 상담과 3천210만 달러의 상담액을 기록했다. /신종팔 기자

전남도,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 3개소 선정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서 고흥, 함평, 곡성의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5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생활인프라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고흥군은 '도양팍 Parking & 休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통해 녹동항 인근(2천380㎡)에 3층 4단(166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한다. 전체 사업비로 50억 원(국비 25억 원)이 투입된다.

녹동항은 드론쇼, 바다불꽃 축제 및 활어센터의 활성화로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해양관광 명소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교통환경 개선, 관광객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의 '월야면 빛그린로 생활환경인프라 구축사업'은 함평 빛그린산단 주

고흥·함평·곡성 생활 밀착형 SOC사업... 국비 57억 원 확보

주차난 해소·산업기반 확충·상권재생 등 정주여건 개선 기대

출입도로인 월야면 소재지부터 산단 입구 구간 0.5km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33억 원(국비 25억 원)이 투입된다.

빛그린산단은 자동차부품,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유치가 활발한 전남의 전략 거점 지역으로, 인근 월야면 소재지와 산단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및 산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의 '옥과현 모두의 객사 프로젝트'는 옥과면 소재지 중심로를 중심으로 열린광장, 야간경관, 역사문화 포토존 조성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리 재생 사업으로 8억 원(국비 7억 원)이 투입된다.

옥과면은 유동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심한 구도심 지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야간경관 요소가 접목된 거리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객과 전남과학대학교 학생

등 청년층 유입 등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기대된다.

앞서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국토부 주관 민관상생투자협약 공모사업에 완도군 '치유의 예술섬 조성사업'이 선정돼 130억 원(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 이어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강진군 '숲속마을 마을 조성사업' 231억 원(국비 132억 원) ▲영암군 '올영 활기찬 Young 타운 조성사업' 184억 원(국비 95억 원)도 최종 선정되면서 2년 연속 전국 최대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시군이 함께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공모에 적극 대응해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SOC 확충과 지역 활력 회복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모집

적정임금·노사책임경영 등 '4대 의제' 실천기업 29까지 접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9일까지 질 좋은 일자리와 노사 상생 실천을 위한 '2025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광주형일자리 인증은 광주지역 기업 중 '더 나은 일자리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화정 관계개선)'를 도입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실천 중인 노사상생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번 인증기업에 선정되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의 인증기간에 ▲경영상정자금 지원 확대 ▲신용보증료 할인 ▲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기술 지원 ▲지방

세 세무조사 유예 ▲일하기 좋은 기업 홍보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13종의 행·재정적 혜택과 2000만원에서 1억원의 인증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광주형일자리 인증사업은 현재까지 총 32개 기업이 선정돼 지원받았다. 이들 기업은 노사상생을 위한 사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일하기 좋은 광주를 위한 상생 모델이 됐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운영 중인 기업으로, 광주형일자리 핵심의제 도입을 희망하거나 적용 중인 기업이다.

광주형일자리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9일까지 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www.gjep.or.kr), 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2025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은 10월부터 서류, 현장심사 등 광주형일자리 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된다.

광주시는 앞서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희망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임금, 고용형태, 근로환경 등에 대한 분석 등 기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광주형일자리 실천 로드맵 등에 따라 컨설팅했다. /전광훈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